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슈퍼위크' 시작

'강선우·이진숙' 놓고 날선 공방 예고

與 "결정적 문제無" vs 野 "복수낙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내에 마련된 '국무위원 후보자' 자리.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새 정부 초반의 정국 주도권 문제와도 맞물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며 전방위 엄호 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의혹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복수의 낙마를 노리고 있다.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개최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이날 열린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됐다.

이후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예고됐다.

이 가운데 가장 날 선 공방이 벌어질 청문회는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14일)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16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부처 수장 자격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한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도 부각하면서 낙마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중 국민 여론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고 보고 최대한 엄호 태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논란이 된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두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우려가 일부 감지된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청문회 이후에도 관련 논란이 계속될지를 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김진수 기자

道 'AI 반려견',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중 복지부 공모 유일 선정

어르신 정서 안정·사회적고립 해소 기대

전남도의 'AI 반려견 활용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남도의 AI 반려견 활용 정서건강 원스톱 지원 구축 사업은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고립형 독거노인 100세대에 강아지 형태의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보급,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 로봇은 어르신에게 말을 걸고 기분을 묻는 등 일상 속 대화 상대로서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며 식사 시간이나 약 복용 시간도 챙겨주는 스마트 돌봄 파트너 역할을 한다.

특히 응급상황 시 119에 연계돼 골든타임 내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보호자는 전용 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정서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돌봄의 연속성·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사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전남도가 총괄 주관하며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실무기관으로 함께 한다. 돌봄 로봇 제조사인 ㈜효돌과 대상자 선별·관리 역할의 주택관리공단 목포지역단이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목포 상동 주거행복지원센터에 거주 중인 고립형 독거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8월께 본격 보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전남이 디지털 복지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기술을 복지에 적극 접목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실질적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9개 시·군이 선정된 바 있다. /김재정 기자

농업박람회 관람하면 전남 관광지 '반값'

여수케이블카·구례수목원 등 27곳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13일 "2025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 행사 기간 중 전남 관광지 입장 할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5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23-29일 나주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미래 농업의 비전과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소지자는 박람회 기간 중 여수해상케이블카, 나주 황토돛배체험, 구례 수목원, 해남 산이정원, 진도 운림삼방 등 도내 주요 유료 관광지 27곳의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온라인 구매는 네이버나 인터파크에 국제농업박람회를 검색해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구입할 수 있다. 오프라인 구매는 박람회 사무국이나 박람회 기간 매표소에서 가능하다. 입장권 가격은 사전예매권 기준 일반권 7천원(현장 판매 1만원), 청소년권 6천원(7천원), 어린이권 2천원(3천원)이다.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천원 상당의 쿠폰(어린이 제외)도 제공된다. /양시원 기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최우선 추진"

박찬대 당대표 후보, 광주서 토크콘서트

"광주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 이룰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2일 광주를 찾아 "광주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민주주의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에 담아 국민주권과 정의, 인권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 민주당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는 박주민·박선원·노종면·김기표·김용만 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와 민생·경제회복 방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AI·문화 산업 등 광주지역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는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12·3 계엄 해제 및 윤석열 탄핵, 6·3 대선 승리까지 짧지만 파란만장했던 지난 7개월은 광주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안정감 있고 믿음직한 수권정당의 위상을 세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변은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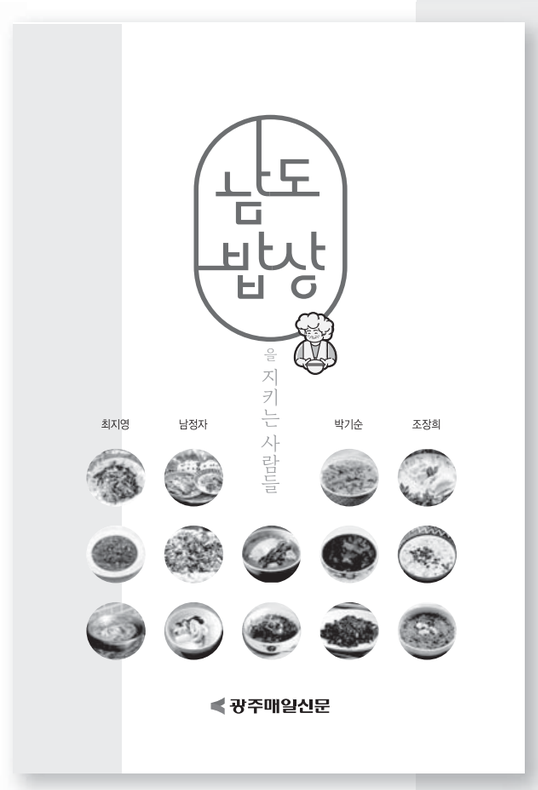
여름철 가축질병 신고센터 운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13일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가축 질병 발생·확산 방지와 신속 대응을 위해 8월까지 2개월 간 여름철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신고센터는 질병진단반, 방역지도반, 방역지원반 등 3개 반으로 편성돼 가축질병 의심 신고 발생 시 신속한 질병 진단과 치료 방향 제시, 가축질병 예방 홍보와 소독 지원 등 가축질병 방역활동을 펼친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고온다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날씨가 지속될 경우 식욕 부진,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가축의 질병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에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농가에 그늘막·안개분무·송풍기 설치 등 축사 고온·다습 방지, 물·비타민·광물질 충분 공급, 적정 사육밀도 준수·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모기 서식지 살충제 살포, 오염·부패 불량 사료 제거 등 세심한 사양관리를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